





## 노동자대투쟁으로 가는 길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연대투쟁 I

### ▶ 노동연대의 기초가 된 ‘교육활동’

1960년대 한국 노동자는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경제성장 기조 아래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보장받지 못한 채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처지에 몰려 있었다. 노동자를 대변할 한국노총은 권력과 자본의 공세 앞에 어용화되어 있었고, 갈수록 거세지는 자본과 권력의 횡포에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평화시장 봉제 노동자 청년 전태일이 분신항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사회 전반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종교계와 학생 및 지식인은 자본의 횡포에 맞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나서기 시작했다.

전태일 분신항거 직후 학생 및 지식인과 종교계는 성명서 발표, 집회와 농성, 추도식으로 노동자를 지원했다. [\(그림 1.2\)](#) 특히 1970년 11월 27일 설립된 청계피복노동조합(이하 청계노조)과 연계해 노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노동자 스스로 노동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지원했다.

노조 설립 초기에는 소수의 조합원과 시장상가 노동자를 대상으로 도시산업선교회,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등의



후원으로 ‘근로기준법 해설’, ‘클럽 활동의 필요성’, ‘부당 노동 행위’ 등과 같은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노조 자체적으로도 야외교육 및 각종 세미나와 여가활동을 통해 친목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의식화 교육을 진행해나갔다. (그림 3)

노동조합을 이끌어 나갈 중견 조합원과 간부들은 종교계 및 대학에서 진행하는 노동운동가 양성 과정을 수개월에 걸쳐 이수했다. 고려대학교와 서강대학교에서는 노동인권 및 경제, 산업 등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그림 4) 특히 강원릉 목사가 운영했던 크리스찬아카데미는 지도자 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당대 진보적 지식인들이 강사를 맡아 노동운동가를 양성하는 고급 교육 과정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조 간부들은 5박 6일간 합숙하며 경제, 사회 문제를 배우고 서로의 노동현장을 공유하며 실태를 알아갔다. 교육 현장은 간혹 어용노조 간부가 포함되기도 했지만 대개 청계노조, 원풍모방노조, 동일방직노조 등 민주노조 간부들이 참가해 생생한 노동현장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감하며 노동연대의 기초를 형성해나갔다. (그림 5)

## ▶ 청계피복노조 연대투쟁의 시작

1970년대 청계노조는 민주노조의 선봉에서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어갔다. 대외활동이 활발해질수록 노동계에 그 이름이 알려지면서 청계노조를 찾아오는 노동자가 늘어났다. 삼성제약



같은 관련 업종이 아닌 곳과도 연대를 맺거나, 섬유 계통 노동자 가운데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노조를 만들고자 찾아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청계노조 연대투쟁은 1971년 한영섬유 노조 김진수 사건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영섬유 민주노조 지부를 탄압하고 파괴하기 위해 사용주 측이 노동자를 사주하여 김진수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다. 이때 이소선과 이승철, 최종인은 병원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투쟁 방법 등을 조언하기도 했다. 이소선과 삼동회 친구 3명은 적극적으로 투쟁을 도왔다. 특히 이소선과 청계노조 간부들이 직접 공장장 집을 항의 방문하여 구류 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함께 투쟁한 끝에 위자료와 병원비, 장례비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자칫 단순 폭행 사망 사건으로 끝날 김진수 사망 사건을 청계노조가 연대투쟁 함으로써 민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었다는 진상규명을 이뤄냈고, 김진수는 모란공원에 안치될 수 있었다.

이듬해에도 청계노조의 연대는 계속되었다. 한국모방(원풍모방) 노조의 퇴직금·임금 체불 문제로 인한 농성을 지지했고, [\(그림 6. 7\)](#) 인천 동일방직 노조 투쟁을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동일방직노조 투쟁은 처음으로 청계노조 조합원이 참여한 데 의의가 있다. 1976년 동일방직노조 지부장이 경찰에 연행된 틈을 타 회사 측 대의원들로만 구성된 대의원대회에서 어용 지부장을 선출한 데 대해 항의하는 조합원들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해고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이소선은 폭행당해 입원한 여성 노동자들을



방문하고 상황을 청계노조에 알림으로써 청계노조 조합원이  
동일방직노조 집회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 ▶ 청계피복노조 연대투쟁의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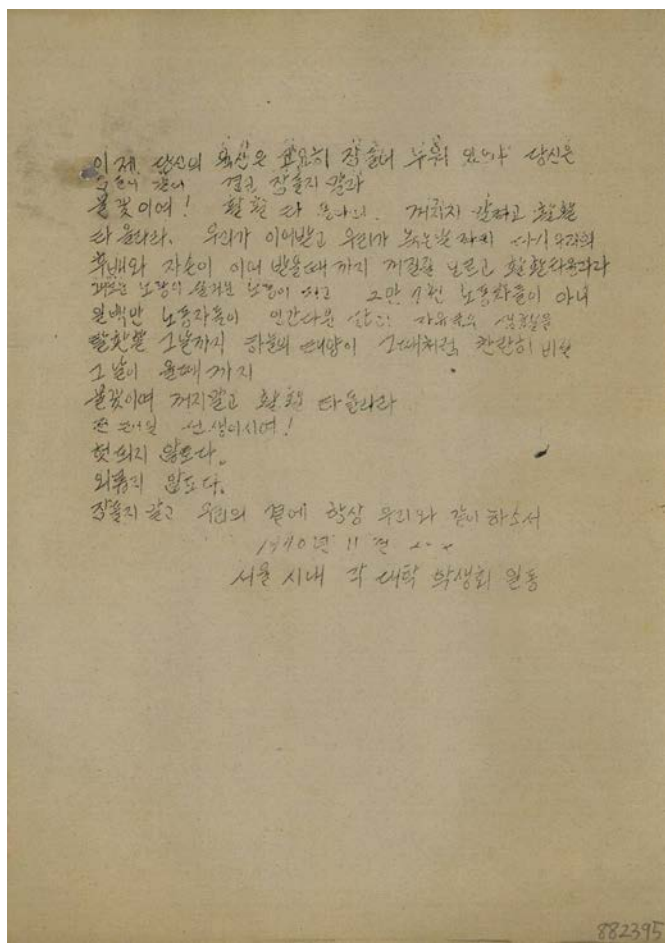
청계노조 간부가 구속된 첫 사례도 풍천화섬 사건을 지원하다  
발생한 일로 연대의 한 형태였다. 청계노조 총무부장 양승조가  
구속된 풍천화섬 사건은 풍천화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해서 청계노조의 도움을 받던 와중 1976년 추석 당일  
부당노동에 반발하며 회사를 나와 가두시위를 하게 되면서  
일어났다. 이때 풍천화섬 지부장에게 도피자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청계노조 총무부장 양승조가 구속되었고, 이에 청계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동부경찰서와 성동지청에 모여 양승조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풍천화섬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며 함께했다. [\(그림 8\)](#)

이듬해 2월 총무부장이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977년  
7월 2일 협신평혁 노동자 민중진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계노조는 곧장 경인지역 노동자와 연대하여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과 영등포 노동청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청계노조 조합원이  
병원 입원을 하는가 하면, 이소선을 비롯해 청계노조 조합원 수십  
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청계노조가 적극적으로 경인지역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투쟁한 데 의의가 있으며, 경인지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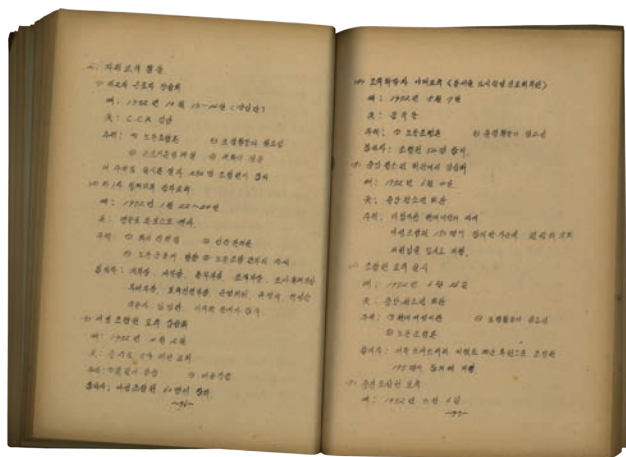
민주노조가 최초로 연대투쟁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림 9\)](#) 이처럼 청계노조는 설립 초기부터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여러 봉제 관련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지원하고 근로조건과 임금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하는 등 활발한 연대투쟁의 선봉에 섰다.





1. 1970년 11월 20일 '서울시내 각 대학 학생회 일동'  
명의를 전태일 열사 추도사, 1970.11.20, 전태일재단





2

2. 전태일 분신 직후 열린 서울법대생 집회, 1970.11.17, 동아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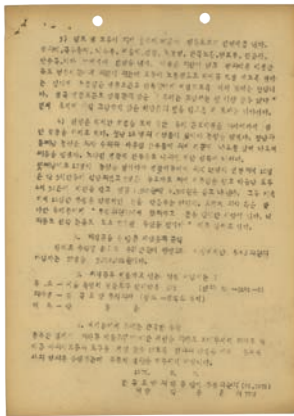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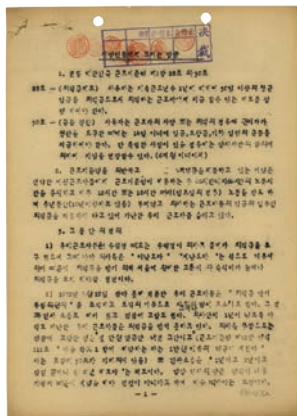
3

3. 청계피복지부 「제2차년도 대의원대회 사업보고서」 교육사업부분, 1972, 전태일기념관









6	6	6
---	---	---

6. 한국도방퇴직금받기투쟁위원회에서 청계노조로 보낸 서신, 1972.8.8, 전태일재단



1. 현행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장 28조와 30조

28조 -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기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0조 -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의 경우에 근로자가 청산을 요구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절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6개월 이내에서)

2.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기업은 연약한 여성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주 48시간 내지 60시간의 노동시간을 무시하고 하루 12시간 또는 18시간까지(일요일의 경우) 노동을 강요하며 수년 동안(10년 이상자도 있음) 부려먹고 퇴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의 일부인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가난한 우리 근로자를  
울리고 있다.

### 3. 그동안의 경위

1) 우리 근로자들은 수십명 때로는 수백명이 회사로  
몰려가 퇴직금을 요구했으며, 그때마다 회사측은  
“이날 오라”“저날 오라”는 식으로 미루어 왔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 서울에 왕래한 교통비와 숙박비가  
늘어나 퇴직금을 포기 해야할 형편이다.

2) 1972년 4월 19일 참다 못해 격분한 우리 근로자  
들은 “퇴직금 받기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직의  
이름으로 사회와 법에 호소기로 했다. 그 결과 민사  
소송도 제기했고 검찰에 고발도 했다. 퇴사한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가난한 우리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회사측 주장으로는 검찰에 고발한 것은  
몇 만원 벌금만 내면 그만이고 (“근로기준법 제12장  
벌칙 111조”“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에 30조가 기재되어  
있음) 또 민사소송은 “1년이고 2년이고 질질 끌려니  
할 테면 해보라”는 태도이다. 담당 검사의 말은 벌칙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별것이 아니라고 하며 매우 딱하다는 표정이다.

3) 법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요처에 진정서를 냈다. 청와대, 국무총리, 내무부, 서울시, 검찰, 노동청, 한국노총, 정보부, 신문사, 방송국, 기타 70개처에 진정서를 냈다. 대부분 회신이 없고 청와대를 비롯한 중요 정부기관에서 회신이 왔는데 모두가 노동청으로 하여금 해결 하도록 했다는 것이며, 노동청은 영등포 근로감독관에게 해결하도록 지시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등포 근로 감독관의 말은 “우리는 고발하는 것 이상 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아직 고발하지 않은 사람들의 것을 받도록 해보자는 이야기다.

4) 진정은 했지만 해결을 보지 못한 우리 근로자들은 회사에 가서 집단 행동을 하기로 했다. 첫날 18명의 여성들이 찾아가 농성을 벌였다. 첫날과 둘째날 농성은 회사 수위와 사무실 간부들에 의해 개 끌려 나오듯 밀려 나오며 싸움을 벌였다. 노량진 경찰서 간부들도 나와서 해산 설득에 나섰다.



셋째날에도 17명이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기동대에 의해 13명이 연행되어 10명은 약 5시간 후에 석방되었고 3명은 주모자로 되어 하루밤을 살고 다음날 오후 4시30분에 재판을 받고 벌금 1,500원씩 4,500원을 물고 나왔다. 그후 계속해서 10일간 투쟁을 벌였지만 돈을 받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회사 측은 찾아간 우리들에게 “투쟁위원회에서 탈퇴하고 돈을 받아간 사람이 있다. 너희들도 진작 눈물로 호소 했으면 주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 4. 퇴직금을 못 받은 사람들과 금액

실제로 수백명 분으로 수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투쟁위원회 가입자는 79명분 5,932,061원이다.

#### 5.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악직 기업체는?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대방동 565(전화 69-5191-8)

회사명 - 한국모방주식회사 (상표 - 킹텍스 복지)

대표 - 박용운



## 6. 여러분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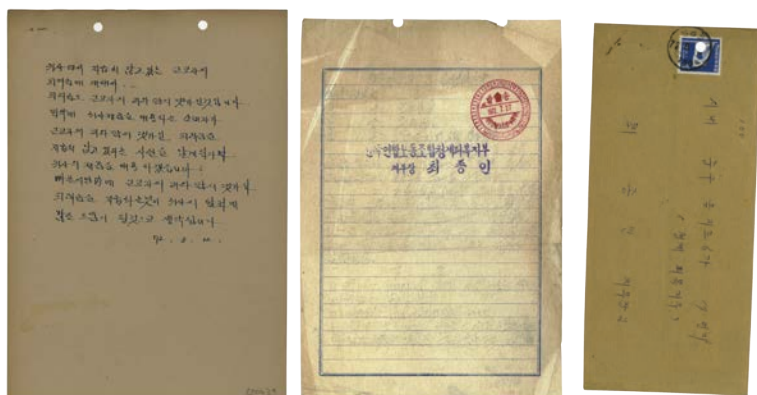
동봉한 엽서에 퇴직금 지불요청에 대한 서신을  
회사로 보내주셔서 회사로 하여금 사회지도층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선의의 압력을 가해 주셔서  
사회 정의를 수립하는데 주동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72. 8. 9.

한국모방 퇴직금 받기 투쟁위원회(62, 7972)

회장 박용온 외 78명





7	7	7
---	---	---

7. 청계피복노조 지부장이 한국모방에 보낸 서신, 1972.8.12, 전태일재단







##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시련과 전환

1977년 9 · 9투쟁

### ▶ 이소선 구속과 노동교실 폐쇄

1977년 2월, 민청학력사건으로 오랫동안 수배 중이던 장기표가 구속되자 조합원들은 돌아가며 면회를 갔고, 재판이 시작되자 법원으로 물려갔다. 장기표는 조합원도 노조 간부를 했던 사람도 아니었지만 전태일 분신행거 직후 이소선 그리고 청계노조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기 때문에 청계 식구나 다름없었다. 같은 해 7월 열린 재판은 이소선을 비롯한 청계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압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에게 불만을 표시한 이소선은 법정모욕으로 재판장에서 끌려 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정모욕 사건으로 이소선을 연행하기 위해 창동집으로 경찰이 들이닥쳤다.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조합원들의 긴 대치 상황 와중, 한여름 목욕을 마친 이소선은 속옷 차림으로 연행되었다. [\(그림 1\)](#) 그리고 곧바로 노동교실 또한 경찰에 의해 폐쇄되었고,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임대계약 해지 요청을 받았다.



## ▶ 9월 9일 결사 투쟁

이소선 석방과 노동교실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은 모든 청계 조합원의 간절한 바람이었기에 몇몇 조합원과 가족을 중심으로 결사적인 투쟁의 필요성이 거론되었다. 노조 지부장이 시위를 주도하게 될 경우 노조 자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몇몇 조합원과 가족을 중심으로 노동교실 탈환과 이소선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기로 한 것이다. 1977년 9월 9일 1시경 노동교실 입구를 봉쇄하고 있는 경찰을 뚫고 들어간 조합원들과 이를 막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드는 경찰과의 대치는 격렬했다. 경찰의 진입을 막으려는 조합원 가운데 교실 창문 밖으로 투신을 하거나 깨진 유리조각으로 배나 팔목을 그어 피를 흘리는 이도 있었다. 석유를 뿌려 놓은 신문지 더미 위에 불을 붙이고서야 진입을 시도하던 경찰은 한발 물러섰다. 조합원들은 필사적으로 불을 켜고, 뒤늦게 도착한 소방대가 창문으로 거센 물줄기를 뿌려대 교실 바닥은 타다만 잿가루와 피 그리고 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조합원들의 처절한 저항은 계속되었다. ‘이소선 어머니를 석방하라’, ‘노동교실을 돌려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늦은 밤까지 투쟁을 이어갔다. 결사 투쟁으로 다치고 지친 조합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양승조 지부장은 경찰과 교섭에 들어갔다. 이소선을 석방하고 노동교실 계약기간을 보장하며, 또한 시위의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합의문서도 없는 구두 약속이었지만 몇몇 조합원의 깊은 상처로 이미 피를 많이 흘린 터였다. 이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밤 11시경 양승조 지부장은 해산을 결정했다. [\(그림 1, 2, 3\)](#)



## ▶ 간부들의 구속과 청계피복노조 활동

경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투쟁에 참여한 조합원은 해산과 동시에 연행되었고, 다음날 체포된 55명의 조합원 가운데 8명은 구류, 5명은 구속, 나머지는 훈방되었다.

9월 9일 결사 투쟁 이후 주요 간부와 조합원이 구속된 상황에서 조합의 분위기는 위축되었다. 집행부는 곧바로, 구속된 부장들을 대신해 차장 중심의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구속자 면회와 구명운동, 구속자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 등을 벌였다. 또한 윤보선 전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함석헌 옹 등 민주화운동 지도자 15명의 명의로 된 「국민의 글」과 청계피복노조 조합원 명의로 된 「호소문」을 인쇄하여 청계천 일대에 배포 하기도 했다. (그림 4. 5, 6) 무엇보다도 결사 투쟁에도 불구하고 유림빌딩 노동교실을 되찾지 못해 거점 공간을 잃은 조합원들의 실망감을 컸다. 조합원들의 이런 상실감을 덜기 위해 1977년 10월 11일 창신동 가정집에 셋방을 얻어 임시 노동교실 문을 열었지만 이마저 형사들의 압력으로 오래가지 못했다.

주요 간부가 구속된 상태에서 차장을 중심으로 한 조합 활동 정상화를 위해 상근 간부와 중견 조합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했다. 주휴제 위반, 근로시간 위반 업체 단속, 임금실태 조사 등의 기존 사업은 물론, 야외교육, 크리스찬아카데미, 의식개발 교육도 지속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77년 10월 23일에는 협동심을 키우기 위한 백운산 등산대회에 220여명의 조합원이 모였고, 같은 해 11월 13일 모란공원에서 거행된 전태일 7주기 추도식에도 200여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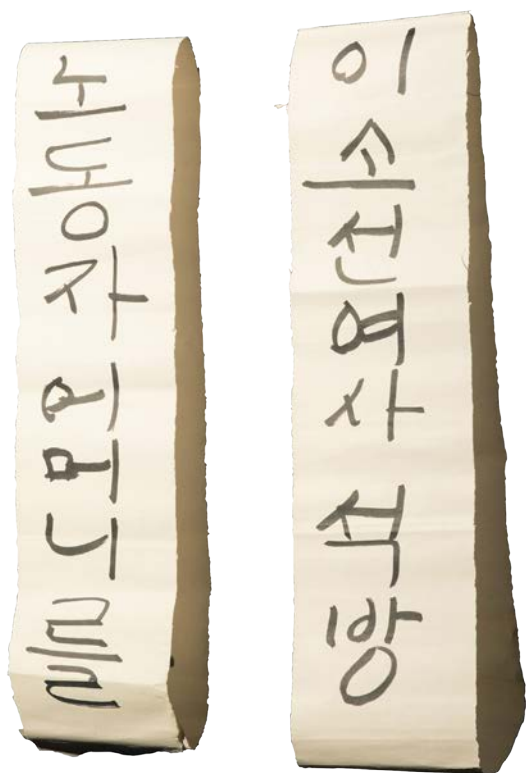


넘는 조합원과 내빈이 참석했다. 그 밖에도 12월 25일 연소 근로자 위안잔치를 열어 25명의 어린 소녀들을 위로하는 등 청계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노조 분위기를 되살리고자 노력했다. (그림 7.8)

1977년 이소선과 주요 간부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12월부터 단체협약이 시작됐다. 12월 13일 을지, 연쇄 부관, 동문 상가의 단체협약이 신규 체결되고, 1978년 4월 12일에는 이들 상가를 포함한 8개 상가 단체협약도 체결되었다. 또한 임금 교섭에서는 1일 8시간 기준 기본급에 대한 시다(견습공), 보조, 미싱사 임금이 체결되었다. 특히 시다의 임금이 지난해 2만원이었던 것이 3만원으로 인상된 것과 객공 미싱사의 기본급이 3만 5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 것도 큰 성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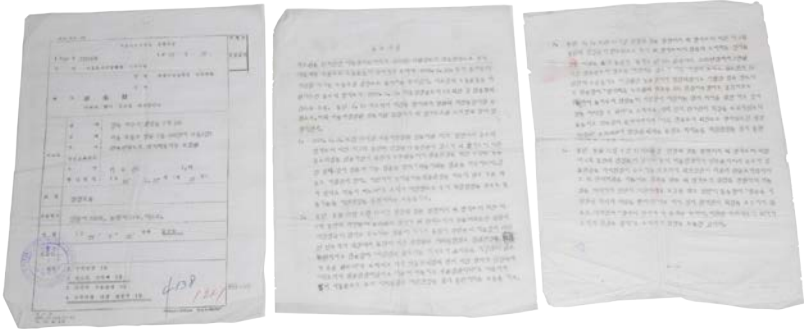
1977년 9월 9일 결사 투쟁으로 주요 간부와 몇 명 조합원이 다치고 구속되면서 조직 활동은 약화되었지만 남은 조합 간부와 중견 조합원을 비롯한 많은 노동자는 간부들의 옥바라지를 하며 조합 활동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다했다. 78년과 79년 사이, 구속된 이소선과 간부들은 석방되었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독재정권의 정치적 영향 아래 노조에 대한 감시와 제약은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이다. 1980년대 청계노조는 노동교실이 폐쇄된 상태에서도 야학 등을 통해 명맥을 이어가며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는다.





1. 이소선 석방 시위 어깨띠, 1977, 전태일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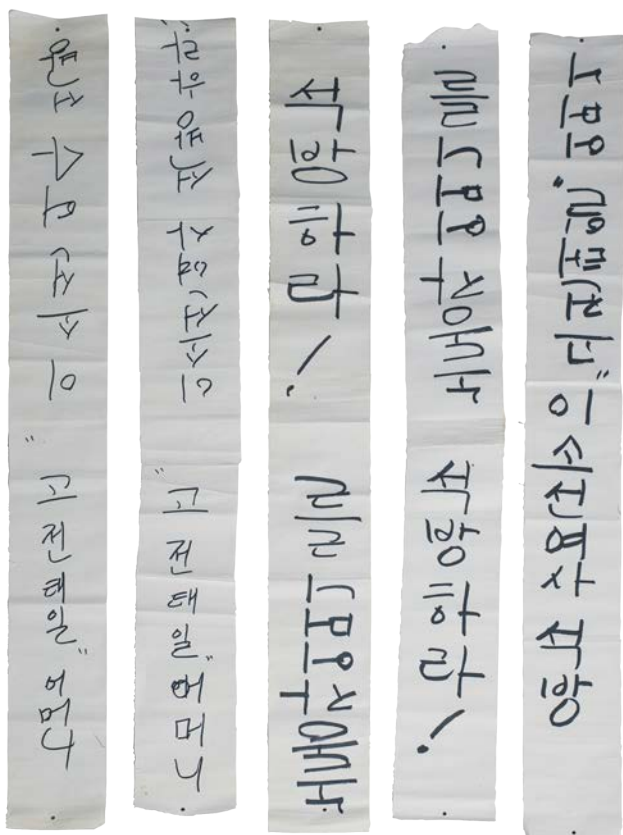




2	2	2
---	---	---

## 2. 공소장 [1977형11956호 이소선, 법정모욕], 1977.7.25, 전태일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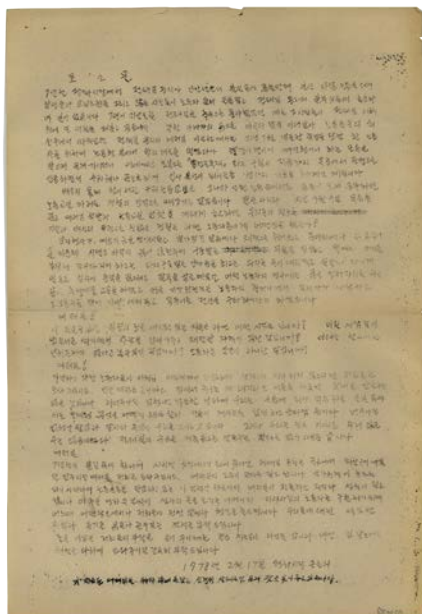




3

3. 이소선 석방 시위를 위해 제작한 어깨띠로 추정,  
1977(추정), 전태일기념관





4		
5	6	

4. 이소선 석방 시위를 위해 제작한 현수막 추정, 1977(추정), 전태일기념관
5. 청계피복노조 구속자 돕기 모금 판매용 손수건, 1977~78, 전태일기념관
6. 청계피복노동자들의 호수문, 1978.2.17 전태일재단



## 호 소 문

“7년전 평화시장에서 전태일 동지가 인간 선언의 불길 속에 몸을 던져 분신 자살 했을 때 학생들과 크리스천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노동자들의 손을 잡고 전태일 동지의 울부짖음에 호응하여 일어섰습니다. 7년이 지난 오늘 전태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전태일 시체 위에 또 매질을 퍼붓고 있습니다. 약한 아녀자의 몸으로 아들의 뜻을 이어받아 노동 운동의 최전두에서 싸워오던 전태일 동지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는 지난 7월 억울한 죽임을 당한 한 노동자를 위하여 노동청 앞에서 항의 데모를 벌였다가 빨갱이년이니 여간첩이니 하는 모욕을 받으며 끌려가시더니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법정모독죄”라는 구실로 지금까지 옥중에서 중병으로 신음하면서 수차례나 졸도를 하며 인사불성이 되시는 등 생사의 기로를 헤메고 계십니다.



배우지 못해 한이 서린 우리 노동교실은 그나마 고된 노동 속에서도 틈틈이 모여 공부하던 노동교실마저도 경찰의 강압으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9일 목숨을 걸고 어머니 석방과 노동교실 반환을 애타게 호소하던 우리들의 절규를 기만과 배신과 폭력으로 짓밟은 경찰은 과연 노동자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

남자 형사가 여공의 옷을 벗기려 들고 발가벗긴 알몸에다 채찍으로 후려치고 종아리에다 쇠몽둥이를 끼운 채 시멘트 바닥에 꿰어 앉힌 후에 구둣발로 무릎을 짓밟고 벽에다 머리를 부딪혀 꼬꾸라지게 하고는 다시 구둣발로 양가슴을 치고는 의자를 들어 내리찍고 설설기어다니게 만들고 심지어 동맥을 끊으려고 팔목을 칼로 베었던 어떤 노동자의 경우에는 굶은 상처자리를 바늘 끝으로 후벼대며 고문을 하였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노동자의 주머니에서 십자가가 나왔다고 그 노동자를 벽에 기대어 세워놓고 몽둥이로 전신을 구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믿을 수 없는 짐승의 짓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법 질서를 따지면서 사람을 잡아 가두고 재판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이래도 한국에는 인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노동자들은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노동자들이 이처럼 아무렇게나 짓밟혀도 괜찮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면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인간 대접은 고사하고 집에서 키우는 개 돼지라도 이토록 가혹한 학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엄청난 억울함을 당하며 우리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울분 속에서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슴이 메이는 듯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탄압과 감시와 속박이 우리를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대로 주저 앉을 수는 없습니다. 전태일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들 수는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년 전에 불길 속에 휩싸여 시커먼 숯덩어리가 되어 죽어 간 전태일 동지를 죽음에서 되살려 내었던 민주 시민 여러분.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국가 권력이 총동원 되다시피하여 노동 운동을 탄압하고 있는 이 엄청난 싸움에서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이 추운 영하의 날씨에 생사의 길을 오가는 어머니와 다섯 사람의 노동자를 구출하기 위해 어느때 어떤 장소에서나 저희들에 관한 발언과 협조를 호소합니다. 우리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같은 저희들의 부탁을 들어주시기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다만 힘 닿는대로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78년2월17일평화시장근로자





7	7
8	

7. 청계노조 백운산 등산대회, 1977.10.23, 이승철

8. 전태일 7주기 추도식, 1977.11.13, 이승철



## 70년대에서 80년대로의

## 청계파복노동조합의 연대투쟁II

### ▶ 청계노조의 투쟁과 확산

1980년 4월 17일 청계파복노조의 임금투쟁 교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언론은 연일 평화시장 임금인상과 퇴직금제 실시라는 협상 결과를 보도했다. [\(그림 1, 2\)](#) 이런 분위기는 전국 노동자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특히 강원도 정선군 사북지역 동원탄좌 노동자들은 청계노조 임금투쟁위 해단식이 있던 4월 19일 어용노조 퇴진과 최저 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투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청계노조 간부들과 이소선은 사북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 정선을 방문하였으나 공수부대가 탄광 진입을 막아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이후 청계노조는 사북 동원탄광 광부와 가족들이 어용노조와 열악한 근로조건에 항의하여 사북읍을 나흘간 점거한 사건을 보고서로 기록하며 연대투쟁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림 3\)](#) 결국, 사북탄광 노동자들의 항거는 신군부가 동원한 공수부대로 인해 유혈진압 되었고,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지만 전국 각지 노동자에게 영향을 주었다. 공단지역 산업현장 노동자에서 사무직 노동자까지 신규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조건과 임금 개선을 위한 투쟁을 벌였다. 197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쟁의가 105건인 것과 비교했을 때 1980년은 897건으로



여덟 배나 늘어난 것을 보아 청계노조 임금투쟁의 결과가 타지역, 타직종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 청계피복노동조합의 위기와 노학연대

1980년 유신의 종식과 함께 민주화의 열기가 거세지는 가운데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신군부의 폭압적 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풍모방 노동조합은 부상자를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했고, 이것이 노조 탄압의 구실이 되었다. 같은 해 9월 신군부는 ‘노동계 평화조치’라는 내용으로 노동조합 파괴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청계노조 역시 노동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기에 1981년 1월 6일 서울시로부터 ‘노동조합법 제32조에 의거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즉시 해산을 명함’이란 공문을 받았다. 해산명령과 동시에 조합원과 몇몇 간부는 아프리 사무실을 점거하여 농성을 단행했다. 결과는 조합원 대부분이 구류 또는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실패로 끝났지만 청계노조는 포기하지 않고 노조 복구 투쟁을 위해 범외노조 활동을 결의하고, 1984년 3월 27일 ‘청계피복노조 복구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뒤 합법성 투쟁을 위해 온 힘을 모았다.

1984년초 겨울, 청계노조는 조합원의 적은 수와 정부기관, 경찰 등의 방해로 범외노조 활동이 쉽지 않았다. 노조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학생들과 연대투쟁을 계획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 또는 지원투쟁이 일반적이지 않았던 당시로선 청계노조의 연대투쟁 제안은 매우 획기적이었다. 학생운동 측 역시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서서 투쟁을 이어나가면서도 노동자, 농민 등 사회와 민중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공장 위장취업 또는 학습소모임 등으로 비밀스럽게 활동하던 때였다. 청계노조는 ‘시정의 집’ 강학들을 통해 그들의 모교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운동 지도부에 연대투쟁을 제안했다. 학생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급속도로 진행되어 같은 해 4월 서울 시내 각 학교에서도 투쟁조직이 결성됐다. 이렇게 시작된 노동자와 학생이 함께한 청계노조 합법성 가두투쟁은 대규모 시위였음에도 1984년에서 85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구속자 없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으며, 86년에도 이어졌다. 특히 1차 가두투쟁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전두환 군사정권의 삼엄한 탄압 속에서도, 80년 5월 이후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위로 기록될 만큼 격렬했다. 이는 몇 년 동안 억눌렸던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투쟁 양상이 격렬하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림 4\)](#) 1985년 노동쟁의도 전년 대비 120% 급증해 265건 발생했고, 투쟁의 양상 또한 구로동맹파업처럼 적극적이고 격렬했다. 이처럼 투쟁의 양상이 대규모 연대투쟁으로 변화하는 데 청계노조 합법성 가두투쟁이 큰 기여를 한 것이다. 무엇보다 청계노조 합법성 투쟁은 노동자와 학생이 연대하여 투쟁한 구체적인 첫 사례로 노학연대의 새로운 개념을 세운 데 의의가 크다. [\(그림 5\)](#)



## ▶ 청계노조의 동맹파업과 연대투쟁

1980년대 청계노조의 노동연대 투쟁은 전성기였다. 청계노조 합법성 투쟁을 이어가면서도 다른 직종, 지역 노동자 투쟁에 동참하거나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1985년 6월 대우어패럴노조 위원장과 간부 3명이 갑작스럽게 구속되는 사건으로 시작된 노동 탄압에 대한 대응에 청계노조 역시 동맹파업과 지지농성으로 함께했다. 구로공단 일대 10여개 공장이 동맹파업에 동참했으며, 청계노조 강학이 노조 위원장으로 있던 경남 창원 통일중공업 노동자들도 지원투쟁에 참여했다.

청계노조는 파업 첫날부터 수십명의 조합원들이 동맹파업에 동참했고, 이소선과 민주인사들도 노조사무실에 모여 지지농성에 나섰다. (그림 6, 7, 8, 9) 또한 연대투쟁의 쟁의부장 가정우는 구로공단 활동가들과 함께 구로 가리봉오거리 일대 가두투쟁 계획을 논의하고, 학생들과 함께 청계 조합원들이 중심이 된 가리봉오거리 시위를 단행하기도 했다. 구로 일대 사업장 곳곳에서도 파업농성이 이어졌으며, 청계노조 사무장과 집행부 몇 명, 효성물산 조합원들은 노동부 중부지방사무실을 점거한 후 항의농성을 벌여 연행 또는 구속되기까지 했다.

대우어패럴 간부 구속으로 시작된 구로동맹파업은 구로 일대 많은 사업장과 민주화단체, 대학생, 종교단체 등이 전국 각지에서 연대투쟁과 지지농성을 벌였지만 6일 만에 강제해산으로 끝이 났다. 이 과정에서 40여명이 구속되었고, 100여명이 불구속 입건, 구류를 받았다. 또한 유혈진압으로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고



해고된 노동자만 1,000여명이 넘었다. 투쟁의 결과는 참담했지만  
구로 연대투쟁은 지역과 사업장의 벽을 뛰어넘는 대규모 노동자  
연대를 보여준 데 의의가 있다.



1

1. 청계노조 단체협약 및 임금투쟁, 1990, 전태일기념관









6

7

6. 대우어패럴노동조합탄압에 항쟁하는 노동자 연대투쟁 종합소식지, 1985, 전태일재단
7. 대우어패럴노동조합탄압에 항쟁하는 노동자 연대투쟁 종합소식지 내용 중 '청계피복노조 사무실에서 농성중인 18개 민주·민권운동단체 대표들', 1985, 전태일재단









## 청계노조 해산 그리고 청계피복노동조합 합법성 투쟁 | (그림 1)

### ▶ 유신의 종언 그리고 불길한 기운

1979년 10월 27일 유신 시대가 끝나면서 청계피복노조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했다. 청계노조는 그동안 빼앗겼던 노동교실을 되찾고 사업의 재개를 위해 중부시장 내 사무실을 개설했다. 중구 광희동 삼지빌딩 402호를 임대하여 사무실 겸 노동교실로 사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무소를 개소한 것은 그동안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해 근로조건이 취약했던 중부시장 노동자를 돕기 위함이기도 했다. 더불어 잠시 중단되었던 지부장컵 등산대회와 축구대회는 10~11월 수백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그림 2, 3) 전태일 9주기 추도식도 100여명의 추도객이 마석 모란공원에 모인 가운데 열렸다. 매년 12월 30일이면 하던 연례행사인 아카시아회 연소 근로자 위안잔치도 연소 조합원 1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행사와 사업들이 재개되어 활기를 되찾는 가운데 청계노조는 소식지 발행을 준비했다. 그러나 1980년 1월 제9호 ‘청계피복노조소식’은 계엄사령부의 검열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사가 삭제되었다. 1970년대 청계노조 회고문 및 YH사건 구속자 석방 환영회 소식, 전태일 9기 추도식 기사 등 많은 내용의 기사가



삭제되어 집행부는 노보 발행 자체를 취소하고, 2달 이후인 3월에야 수정 발행했다. (그림 4)

유신정권보다 무서운 군사정권의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가운데 1980년 3월 6일 청계노조 운영위원회는 1980년 단체협약 임금인상 투쟁을 결의했다. 팽팽한 긴장감과 계속되는 협상 결렬에 노조 집행부는 4월 8일 협상 결렬과 동시에 회의장에서 곧바로 단식농성을 단행했다. 이에 조합원들도 평화시장 옥상 시위로 거리 시위로 농성을 이어갔다. 그 결과 농성 11일 만인 4월 17일, 15인 이상 사업장만 지급하던 퇴직금 지급 규정을 10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직책별 임금인상안 등 청계노조의 요구조건 대부분을 조인하는 데 성공했다. (그림 5) 더불어 노동조합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중부시장 봉제 업체도 교섭 투쟁 끝에 타업체와 같은 조건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 신군부의 탄압과 청계노조 강제해산

성공적 단체협약을 체결한 청계노조는 4월 18일 농성 해단식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청계노조는 <전국 800만 노동자에게 드리는 글>과 함께 어용화된 한국노총 간부 퇴진과 각성을 촉구하며 <노총을 비롯한 17개 산별은 민주화 작업에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배포했다. (그림 6)

같은 해 5월, 전국은 신군부 쿠데타 주역 전두환 퇴진과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대학생들 시위로 민주화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청계노조 간부와 몇몇 조합원들도 개별적으로 대학생 가두시위에 동참했고, 이소선 어머니도 고려대학교 등 대학교 집회에서 노동자 현실을 폭로하고 민주화 지지 연설을 하며 많은 대학생들을 감동케 했다.

민주화의 열기가 거세지는 가운데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광주를 폭압적으로 진압되었고, 분노한 원풍모방노동조합은 부상자를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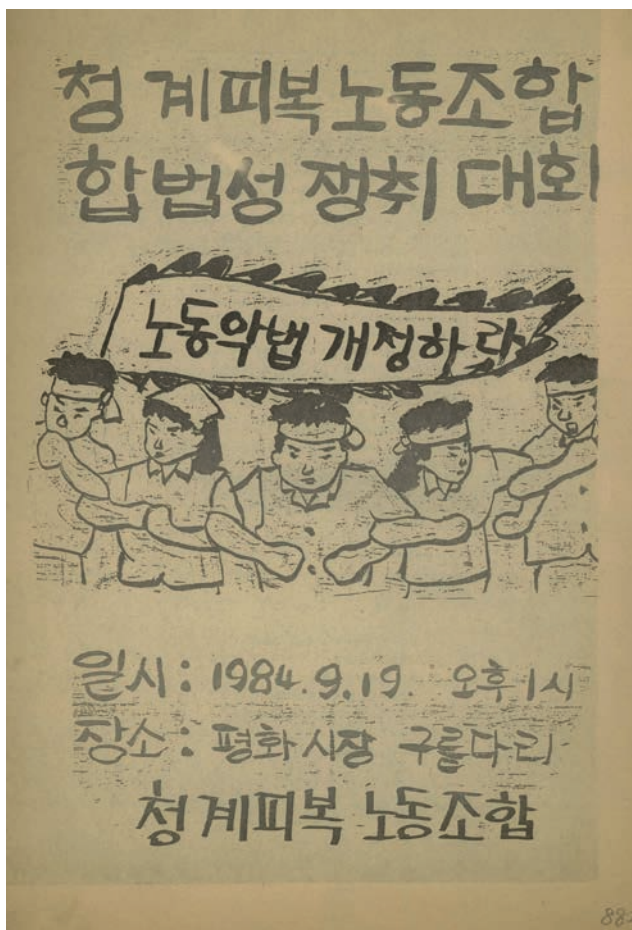
신군부는 광주 진압에 이어 이어 민주노조를 제거하기 위해 1980년 9월 ‘노동계 정화조치’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 파괴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청계피복노조 탄압의 서막으로 신군부는 그해 4월 단체협약 임금인상 투쟁 과정에서 연설한 이소선 어머니를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수배했다. 또한 노동청 업무조사라는 미명으로 노동청 직원이 노조사무실에 상주하며 탄압의 구실을 찾기 위해 모든 서류를 뒤졌다. 어용화된 한국노총을 이용해 노조정화위원회를 만들어 청계노조의 중요한 주역들을 해임하거나 제외시킬 것을 명령하고, 노동청에서 이를 감시했다. [\(그림 7.8\)](#)

한국노총 정화위원회 조치에 따르지 않자 신군부는 이소선 어머니를 구속하고 군사법정에 세워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여 2번째 옥살이를 하게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81년 1월 6일 서울시로부터 ‘노동조합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즉시 해산을 명함’이라고 적힌 공문이 청계노조로 우송되었다. 노조법 32조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해산을 명하거나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었다. 해산명령과 동시에 간부와 몇몇 조합원은 아프리 사무실을 점거하여 해산명령 철회 농성을 단행 했지만 결과는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 대부분이 구류 또는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실패로 끝났다. [\(그림 9\)](#) 하지만 청계노조는 포기하지 않고 비합법 법외노조 활동을 결의하고, ‘청계모임’도 만들어 노조 활동을 이어갔다. 다만 법외노조 활동은 경찰과 노동청의 탄압과 방해 속에 1명의 조합원 가입서를 받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1984년 3월 27일 청계노조는 ‘청계피복노조 복구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합법성 쟁취만을 목표로 적극적 방식의 투쟁으로 나아갔다. [\(그림 10\)](#)





1

1. 「청계피복노동조합 합법성 쟁취대회」 자료집, 1984, 전태일재단





출처: 청계피복노조50주년 기념도록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전태일재단, 2020.

2
3

2. 청계노조 조직 양성화 2차 교육, 1980.2.18.

3. 제8회 지부장 컵 쟁탈 등산대회(도봉산), 1979.11.12.





4. <청계피복노조식>, 1980, 전태일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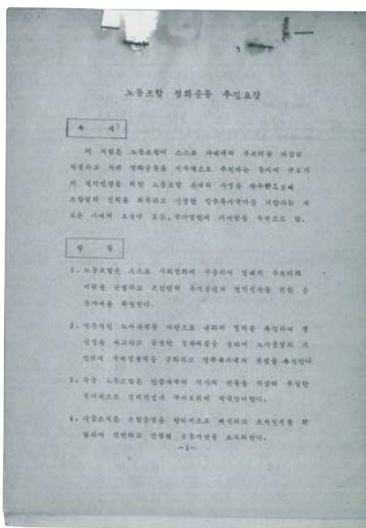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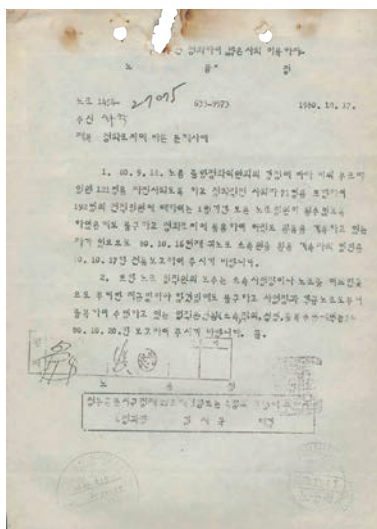
[illegible]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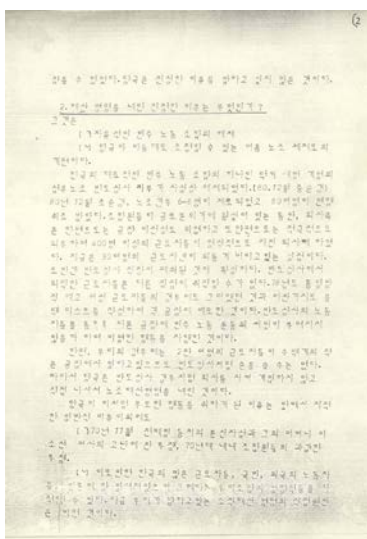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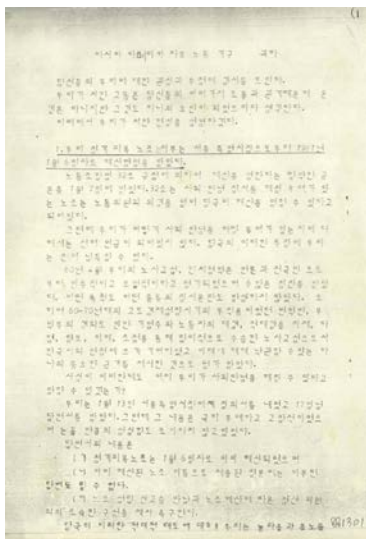
5. 단체협약 체결을 조인하는 사용주와  
청계노조 위원장 임현재, 1980, 전태일기념관
6. 청계노조작성 <전국800만 노동자에게 드리는 글>,  
1980, 전태일기념관





- |   |   |
|---|---|
| 7 | 8 |
|---|---|
7. 노조 정화조치 후 불응에 대한 보고 명령서, 노동청, 1980, 전태일기념관  
 8. 한국노총이 발행한 <노동조합 정화운동 추진요강>, 1981, 전태일기념관





9. 창계피복노조 강제해산 철회를 위해  
<아시아 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에 보내는 글, 1981, 전태일재단



아시아 아메리카 자유 노동기구 귀하

당신들의 우리에게 대한 관심과 우정에 감사를 드린다.

우리가 처한 고통은 당신들의 여러 가지 도움과 관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아래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설명하겠다.

1. 우리 청계피복 노조 지부는 서울 특별시장 으로부터 1981년 1월6일자로 해산명령을 받았다.

노동조합법 32조 규정에 의하여 해산을 명한다는 짤막한 공문을 1월7일에 받았다. 32조는 사회 안녕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노조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당국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회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 당국의 이러한 주장에 우리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

80년4월 우리의 노사교섭, 단체협약은 언론과 전국민으로부터 민주적이고 모범적이라고 평가



되었으며 수 많은 칭찬을 받았다. 어떤 폭력도 어떤 종류의 질서문란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60-70년대의 고도경제 성장시기의 부작용이었던 빈익빈, 부익부의 격화로 인한 기업주와 노동자의 대결, 적대감을 자제, 타협, 양보, 이해, 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습한 노사교섭으로서 한국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미래에 대해 낙관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어찌 우리가 사회안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1월 13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서를 내었고 17일날 답변서를 받았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극히 무례하고 고압적이었으며 눈썹 만큼의 성실함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답변서의 내용은

(ㄱ) 청 계 피 복 노 조 는 1월 6일자로 이미 해산되었으며

(ㄴ) 이미 해산된 노조 이름으로 제출된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다.

(ㄷ) 노조 설립 신고증 반납과 노조 해산에 따른



청산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재차 촉구한다.

당국의 이러한 적대적 태도에 대해 우리는 놀라움과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당국은 진정한 이유를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2. 해산 명령을 내린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ㄱ) 자율적인 민주 노동조합의 해체

(ㄴ) 당국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어용노조 체제로서의 개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주 노동 조합의 하나인 럭키 재벌 계열의 섬유노조 반도상사 지부가 사실상 해체되었다. (80.12월 중순경)

80년 12월 초순경, 노조간부 6-8명이 체포되었고, 80여명이 연행 취조받았다. 조합원들이 공포 분위기에 휩쓸려 있는 동안, 회사측은 한편으로는 공장 이전설로 위협하고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회유하여 400여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형식적으로 자진 퇴사케 하였다. 지금은 30여명의 근로자들이 외롭게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조만간 반도상사



직장이 폐쇄될 것이 확실하다. 반도상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은 다른 직장에 취직할 수가 없다. 78년도 동일방직 해고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공장에 배포한 것이다. 반도 상사의 노동자들을 통해 다른 공장에 민주 노동 운동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을까 하여 비열한 행동으로 자행한 것이다.

한편, 우리의 경우에는 2만 여명의 근로자들이 수백 개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반도상사처럼 손을 쓸 수 없다. 따라서 당국은 반도상사 경우처럼 회사를 시켜 개입하지 않고 직접 나서서 노조 해산명령을 내린 것이다.

당국이 이처럼 무모한 행동을 취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지적한 일반적 이유 이외에도

(ㄱ) 70년 11월 전태일 동지의 분신자살과 그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고난에 찬 투쟁, 70년대 내내 조합원들의 과감한 투쟁.

(ㄴ) 이로 인한 한국의 많은 근로자들, 국민, 외국의 노동자들, 언론에 잘 알려져 있으며 그에 따른 우리조합의 영향력 등을 지적할 수 있다.



# 청계피복노동조합의합법성

자 료 집

그 무엇보다

먹어도 곱힐 수 없고

물리성태야 묻지설 수 없으며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정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밖에 없음을 각성한

경화시장 일대 우리 2만여 노동자의 무한한 지력이

우리의 투쟁을 끝없이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것이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청계피복노동조합 복구대의 선언문 중에서—

청계피복노동조합

10

10. 청계피복노동조합 합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자료집,  
1984, 전태일기념관



## 청계노조 해산 그리고 청계피복노동조합 합법성 투쟁II

### ▶ 청계노조 재건을 위한 준비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민주노조 탄압의 일환으로 지역노조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각 사업장별 노조만을 인정하며 민주노조를 해체, 압박해나갔다. 1981년 청계노조 역시 강제해산에 이르렀고, 이후 민주노조의 파괴와 노동자 탄압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공개적 대중적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져갔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범외노조 활동을 결의하며 만든 청계모임 역시 청계노조 재건과 새로운 노조 설립을 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고민은 청계노조 재건으로 결론이 났고, ‘복구대회’란 명칭으로 1984년 3월 27일 ‘청계피복노조 복구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같은 해 4월 8일, 200여명의 조합원이 명동성당에 모여 청계노조 강제해산을 규탄하고, 청계노조를 불법노조로 규정한 데 대한 부당함을 알리며 노조 복구를 선언했다. 그리고 5월 2일 장충동 형제교회에서 “청계노조 합법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개토론회를 통해 청계노조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합법성 투쟁을 준비했다. (그림1.2)



### ▶ 청계노조 합법성 투쟁의 본격화

청계노조 합법성 투쟁이 본격화되면서 84년 4월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대회’를 선포하고 적극적 투쟁을 위해 집행부는, 당시 비밀스럽게 노동현장으로 들어가 투쟁하던 학생과의 연대를 모색했다. 청계노조 집행부는 야학에서 활동하는 강학들의 도움을 받아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생운동 대표를 만났다. 학생 대표들은 서울을 남부, 서부, 북부 세 지역으로 나눠 각 대학 학생들을 동원할 것을 집행부에게 약속했다. 이렇게 연대투쟁이 시작되자 서울시내 각 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투쟁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학생과의 연대투쟁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대회’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뒤 제1차 대회를 1984년 9월 19일 평화시장 전태일 분신허거 장소에서 진행하겠다는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그림 3, 4\)](#) 구속을 각오한 청계노조 조합원과 일선의 학생들은 삼엄한 안기부와 경찰을 피해 가두시위 동선과 작전을 계획했고, 그 과정에서 열악한 평화시장 봉제 공장의 현실과 이소선을 만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투쟁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마침내 시위 당일, 평화시장 전태일 분신허거 장소에서 시작하기로 한 가두시위는 실패했지만 계획에 따라 각자 자리를 지키던 노동자와 학생들은 총 책임자 황만호의 선창에 따라 하나같이 노래를 부르며 집결했다. “청계노조 인정하라” “노동삼권 보장하라” “노동악법 개정하라” “노동자 만세”를 외치며 노래했다. 이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연대투쟁을 위해 몰려오는 학생들로



3·1고가도로는 가득찼다. 고가도로는 일시에 마비되었으며 구호와 노래를 부르는 시위대의 위세는 대단했다. 당황한 경찰의 초기 대응이 실패하자 가두 투쟁은 더욱 격렬해졌다. 서울시 테러 진압 특수부대와 경찰이 투입되기까지 격렬한 시위는 1시간여 동안 계속되었다. 특수부대 진압팀이 투입된 이후 황만호를 포함한 청계 조합원과 학생 122명이 연행되면서 1차 합법성 투쟁은 끝이 났다. 이날 시위로 조합원과 많은 학생들이 부상 당하거나 연행되었지만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시위 중 하나로 기록될 만큼 성공적이었다. 청계노조와 학생의 연대투쟁은 이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크고 작은 노동자 가두시위의 계기가 되었다.

1차 합법성 쟁취투쟁이 성공적으로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같은해 10월 12일 을지로 5가 수도예식장 앞에서 노동자, 학생 4,000여명이 모여 “청계노조 인정하라”를 외치며 2차 투쟁을 전개했다.

1984년 청계노조가 복구투쟁을 선포한 뒤 2차레에 걸친 학생과의 연대투쟁이 구속자 없이 성공을 거둔 가운데 청계노조는 ‘청계노조복구 1주년 기념 야유회’를 개최하여 노조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그림 5)

1985년 3차, 1986년 4차 합법성 쟁취투쟁에도 학생들은 노동자와 함께 대규모 투쟁을 이어갔으며, 서울 주요 대학들의 경기 지역 분교 학생들까지 참여하는 등 투쟁의 위세는 꺾일 줄 몰랐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타업종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었다. 청계노조는 동맹파업과 연대투쟁으로 민주노조 투쟁을



지원했다. 계속된 신군부의 탄압과 억압은 결국 87년 7~8월 전국 노동자 대투쟁으로 폭발했고, 11월에는 지역노조 설립이 가능하도록 노동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 ▶ 청계노조의 합법성 쟁취

지역노조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해지자 청계노조는 합법적인 노조 설립을 위해 1987년 12월 종로구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구청에서 요구한 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했음에도 거둬 반려되어 돌아왔고, 신고필증은 나오지 않았다. 해를 넘긴 1988년 2월 종로구청에 항의 방문 후 청계노조는 ‘합법성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을 선포했다. 집행부와 조합원은 노조 합법성 쟁취까지 무기한 농성을 결의하고, ‘서울지역 노조 전진 대회 및 문화제’에 참가하여 청계노조 투쟁을 알렸다. 그 외 명동성당에서 ‘개정노동법상의 노조설립 형태에 관한 공청회’를, 고려대학교에서 ‘지역노조 쟁취를 위한 공동실천대회’를 청계, 인쇄, 제화 공동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그림 6. 7) 또한 지속적으로 종로구청을 항의 방문하였고, 각종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농성의 결과 같은 해 5월 2일 종로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이 교부되어 청계노조는 강제해산 8년 만에 합법성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역사의 저울을 수 있는 차라한 아픔을 나눴던 6.17의 악몽이 평범, 폭로, 폭력보다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 2014년 11월 노동자의 생애는 나의 몸이 기억하기만 하는 장시간 노동과 살인적인 임금동맹정책으로 인건이 거의 물줄기처럼 흐르고 있다. 노동쟁의와 재계약의 결정을 단합정책이 아니라 노동의 결속과 단결로 만드는 원형, 노동의 결속과 시민대중의 정책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과 돈의 비례도, 노동자를 단합정책은 국가와 자본이, 모든 국민이 잘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다음날 "선진국"임을 자랑하고 노동자를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실업에서 온갖 죄악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 아니라 배려와 자비의 밑줄을 긋고있을 때이다.

비밀의 노조노형은 “내 활동을 뒷받침 하겠다”, “내가 죽으면 관중한다”며 계속적으로 이의제기, 불복의 일련된 행위를 전개하며 10여년 간 정권권력 5인 5일 노동자의 조직적 구성원적 지위를 쌓아 올렸지만, 이 나라 노동운동의 싹을 틔워 준다는 목적을 실현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8·17 이후 당국은 국가보안법위반에서 그쳤다는 노동법에 의거하여 노조노형을 재판 형량을 내세우며 노조 “혁명활동”의 반사회적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렀다. 당국의 무리한 재판결정을 거두어온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노조노형의 재판에서 이 정권은 반사회적 행위를 아무 근거 없이 인정 실용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노조노형은 노조노형이 있는 노조노형의 재판은 정권기에서 거두어 3년형을 선고했다. 어떤 재판의 법원이 사형을 누수기까지 정권기에서 노조노형을 거처러도 고한데도 노조노형이, 어떤 노조노형을 정권기에서 사형을 정권당국이 노조노형의 재판에 판결한 법원이 할 것이다.

역사를 통해 감수하기를 하고 돌아선 간부들은 혁명당정적책임에도 알리지 않고 조국통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들만 처리, 결정할 불명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던 중 3월 1일, 북한은 세습노조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선고를 하게 된다. 노조 장항은 노조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통치적 기관인 조선노동당에 흡수, 중 7개의 조국통일당 노조 30일 정치위원회라는 헌법, 같은 방법으로 정책적 노조로서의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불법적이고도 엄격적인 이원화 차서는 전인민적 같은 정체를 자극하기 더욱 불합리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가 과거에 비해 낡은 노조들로서의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노동운동에 대해 불법적인, 강제적인, 불법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렇듯 노조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주의적 노조라는 것이 옳지 않다.

[illegible][illegible]

지나가 무당하고 당함으로써 더 이상 깨질 것이 없다고 천만의 농작가들은 온 몸을 던져 일국의 지명된 무당가 되어갔다. 이렇게 지칠수록 더우기 절실한 생존의 요구로, 최소한의 기본적 인연에 관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전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인위적이지 않고 농민과 보편을 전적 구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현주 노동운동가들은 국외에 출세하여 '노동가'에 대한 명예의 표시를 얻어내기도 했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단행되는 800만 농노자를 수용하고 모든 국민을 죽인 것이다.

원종묘에서 옮겨났던 직속에는 영아세정(영아, 박물군)에서, 정형숙은 대정묘방과 대정성숙(대정, 조새물)에서 또다시 대고 달라는 일이 최근 발생하였다. 이들이 받아 전 해고종거사라는 \*원종묘방 사전 당시 소요세 원종함으로써 국기와 사대사혁을 제해할 인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출처가 없는 글이 없다\*는 \*노동부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며, 노동자들을 함자라 추측·말살시킨다는\* 이의가 바로의 본질이다. 따라서 이의가 조대하고 있는 신년식 무언가

복고, 복학, 석방, 해방교회를 이루고 선진화되라고 노동자들이 생존권까지 박탈하는 정책이 계속되는 이 땅에서 어떤 진정한 국민회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 노동교섭이 현실적으로도, 부당하게 왜곡된 노동자들이 원칙에 복종되어 자유로운 노동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 국가전환' 이런 구호는 한낱 정치적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폭력과 고문에 의한 인권유린행위가 정권체제의 주도 아래 공공연히 자행됨으로써,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지킬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노동운동의 지도자를 제압 위해서 장기감금사건과 폭행·협박을 일삼고, 마침내 순회교폭제 도입은 여간성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illegible]

무당고, 돌무지구, 흰가, 북은 불씨가 화할 때 고, 종, 불의 화를 이루고, 큰 화를 행하듯 일할야 이루어지는 이 정지정화의 특성은 모든 노동자의 머리카락에 열려서 가히칠 것임을 행하여는 의미다.

왜냐지 연한것은 고가 사해는 머리카락의 노동정면에서 나날이 더가하는 노동가본전 유언의 국의 일부분 지나지 않음이 행해져, 정부 일꾼은 어느노동자도 노동정면을 띠어 명시하고, 노동정면을 노동정면으로 한다면 어느노동자정해 국과 장단하고, 노동가본정면을 어느노동자정해는 고가정면으로 정해 800만 노동정면이 머리카락으로 속하여는 의미다.

1984년 4월 8일

하그노도기보지원위원회

2 1/2 97231 8

## 3



### 노동운동의 봄은 언제 오려나?

이나라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아픔을 남겼던 5·17의 악몽이 석방, 복교, 복학조치로 조금씩 걷혀지고 있다. 그러나 800만 노동자의 생활은 나날이 길어지기만하는 장시간 노동과 살인적인 임금동결정책으로 인간이하의 동물적 생존조차 힘든 지경이다. 노동악법과 계속적인 노동운동 탄압정책은 이 나라를 소수 독점재벌의 지상낙원으로 만드는 한편,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생지옥으로 만들고 있다. 당국은 이제라도 노동운동 탄압정책을 즉각 중단하며, 모든 국민이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다름아닌 “선진조국”임을 깨닫고 노동정책의 일대전환을 가져오기 바라는 심정에서 본 협의회는 최근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태에 대하여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1. 청계피복 노동조합은 부활되어야 한다.

청계피복 노동조합은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말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죽음으로 외친 전태일 동지의 거룩한 희생의 땃가로 결성되어 10여년 동안 청계천 주변 2만여 노동자의 조직적 구심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노동운동의 살아있는 기둥으로써 눈부신 활동을 하여왔다. 그러나 5·17 이후 당국은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고쳤다는 노동법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에 해산 명령을 내림으로써 소위 “개혁 입법”의 반노동자적 본질을 여지없이 폭로였다. 당국의 부당한 해산명령을 거부하던 조합간부들을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이 정권은 야만적 폭력을 마구 휘두름으로써 신광용 동지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척추가 부러지게 되었는데도 재판을 진행시켜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다. 과연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지키려던 조합원과 간부들이 아니라, 바로 그 노동조합을 부당하게 강제해산시킨 서울시와 경찰당국이 역사와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간부들은 형 집행 정지 중임에도 굶하지 않고 조합활동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경찰에 불법 연행된 바 있었다. 그러던 중 3월 6일, 검찰은 새삼스럽게 형을 집행하려고 신광용 동지를 구속하였다. 또한 경찰은 노동조합의 복구과 신광용 동지의 석방을 위해 힘쓰던 황만호 동지 등 7명의 조합간부들을 3월 30일 강제연행하는 한편, 갖은 방법으로 청계피복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불법적이고도 강압적인 이러한 처사는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자극시켜 더욱 큰 불상사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당국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노동운동에 대해 불법연행, 강제수색, 보복조치 등 일체의 탄압행위를 중지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일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강제해산 당한지 3년이 지난 지금의 청계천 피복 노동자들의 실태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나빠지고 있다. 임금수준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으며, 다음날 출근하여 보면 밀린 임금을 떼어먹고 도망가버리는 악덕기업주가 있어도 호소할 곳조차 없으며, 정해진 작업시간도 없이 시키는 대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이 어린 노동자들이 더이상 이 세상과 이 나라를 저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 길은 오직 하나, 청계피복 노동자들이 굳게 뭉쳐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부활시키는 길 뿐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폭력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파괴된 모든 노동조합은 원상복구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은 원직·복직되어야 한다는 것은 본 협회회의 굽힐 수 없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원상복구에 대해 당국이 또 다시 어떠한 탄압을 가한다면 본 협회회는 노동운동의 연대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 2. 노동자의 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는 5·17사태 이후 노동운동을 말살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강제해산시키고, 폭력적으로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노동현장에서 쫓아내고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을 투옥시켰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이 정권은 모든 정보기관을 총동원하여 노동운동가들을 끊임없이 감시·추적하고,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취업금지자 명단을 작성하여 기업체에 배포함으로써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 3권을 남김없이 짓밟고 있다.

이리 태창메리야스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노동자들이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인천지역의 태평특수, 삼익가구, 신도실업에서 잇달아 부당해고 당함으로써 더 이상 뺏길 것이 없다고 판단한 노동자들은 온 몸을 던져 당국의 미열한 수법에 항거하였다. 이들의 외침은 너무나 절실한 생존의 요구요,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에 관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전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인천지역 해고노동자 6명을 전격 구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한주 노동부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답변함으로써 800만 노동자를 우롱하고 모든 국민을 속인 바 있다.



원풍모방에서 쫓겨났던 박순애는 쌍마패션(대표:박준근)에서, 장형숙은 대성모방과 대영섬유(대표:모재율)에서 또 다시 해고 당하는 일이 최근 발생하였다. 이들이 받아 준 해고통지서에는 “원풍모방 사건 당시 소요에 협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이익을 저해한 인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노동부장관의 답변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며, 노동운동을 끝까지 추적·말살시키려는 이 정부의 결단을 뚜렷이 증명해주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복교, 복학, 석방, 해금조치를 아무리 선전할지라도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하는 정책이 계속되는 이 땅에서 어찌 진정한 국민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 파괴된 노동조합이 원상복구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원직에 복직되어 자유로이 노동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는 한, ‘민주복지 국가건설’이란 구호는 한낱 정치적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 3. 정치적 폭력행위는 뿌리 뽑혀야 된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폭력과 고문에 의한 인권유린행위가 정치권력의 주도 아래 공공연히 자행됨으로써,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기본적 인권을 지킬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노동운동의 지도자를 계엄 아래서 장기감금시킨채 폭행·협박을 일삼고, 마침내 순화교육까지 보내는 야만성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지난 3월 10일, 본 협의회가 주최한 노동절 기념 대회에 참석했던 서기화, 김옥섭, 김용자 동지가 서대문경찰서에 불법연행·조사받는 과정에서 2시간 무수히 구타당함으로써 김옥섭 동지의 경우 실신까지 하게 되었다. 이들은 인천지역에서 블랙리스트에 의해 해고되자, 용감하게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복직을 요구하다, 복직은 커녕 감옥에 쳐 넣어졌으며, 석방된 뒤에도 “계속 복직을 요구 한다면 재구속 시키겠다”는 당국의 협박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석했다가 또다시 경찰에게 매를 맞고 까무라쳐 누웠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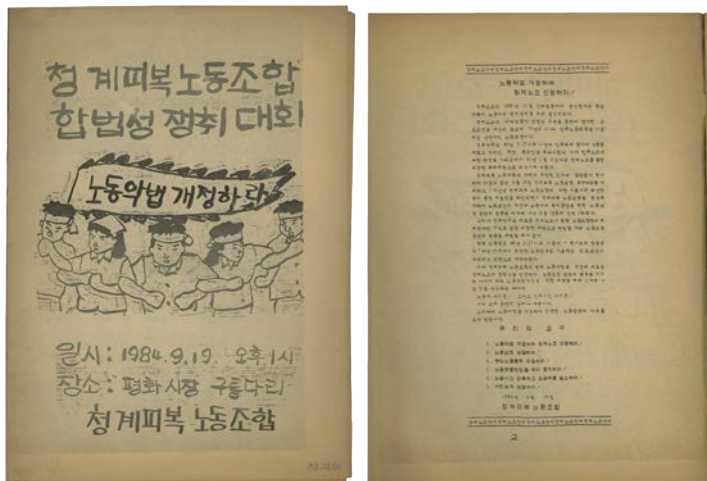


부당해고, 불법구속, 원직·복직을 봉쇄하기 위한  
협박, 공갈, 집회 참석을 이유로 한 폭력행위를 잇달아  
퍼부어대는 이 정치권력의 폭력성은 모든 노동자의  
머릿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태는 이땅의 노동  
현장에서 나날이 더해가는 노동기본권 유린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이 명백하다. 정부 당국은 어느  
때보다도 노동자들을 학대·멸시하고, 노동운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반노동자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을 8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1984년 4월 8일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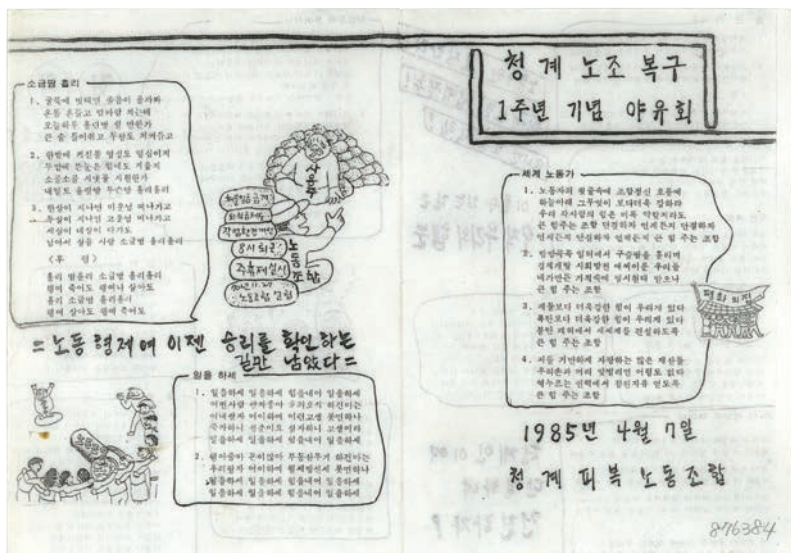




4	4
---	---

4.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대회 자료집, 1984, 전태일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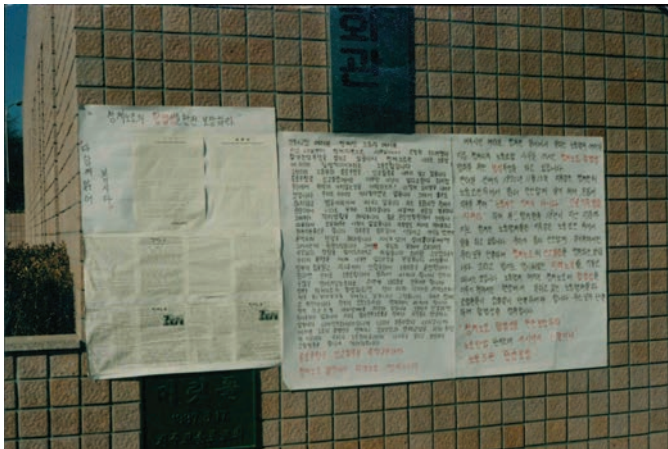




6

6. 노조사무실에서 열린 청계노조 합법성 보장과  
신고필증 교부에 대한 농성 현장, 1988, 전태일재단





7

7. 청계노조 합법성 보장과 신고필증 교부에 대한 농성 중  
평화시장내 부착한 벽보, 1988, 전태일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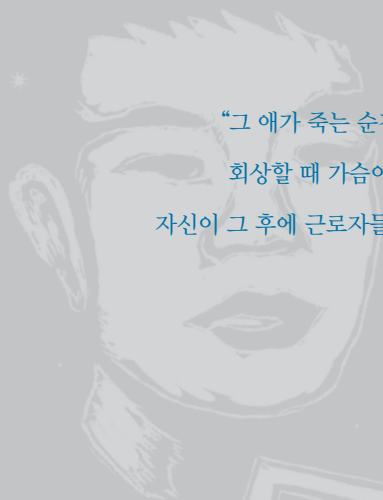




## 4부

###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그 애가 죽는 순간까지 어린 근로자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을 회상할 때 가슴이 메입니다. 목메인 마지막 흐느낌을 생각하니 내 자신이 그 후에 근로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 이소선 10주기를 맞으며 이소선을 기록하다

2021년 전태일기념관은 이소선 10주기를 맞아 이소선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노동구술기록을 진행했다. 이소선은 1970년 11월 13일 반인간, 반노동자적 경제성장 정책 이면을 폭로하며 분신항거한 아들 전태일의 유지를 이어받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다. 노동자를 위해 살겠다는, 아들과의 약속은 이소선의 반평생을 태일이 엄마에서 노동자의 어머니로 살아가게 했다. 40년 세월을 ‘노동자의 어머니’로 열정적이고 뜨겁게 살아낸 이소선은 항상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했다. 전태일기념관은 그 역사를 함께한 열네 분의 인사를 모시고 기억을 기록했다.

### ▶ ‘노동자의 어머니’와 대학생

장기표가 기억하는 이소선은 ‘타고난 인간해방 운동가’였다.

이소선과 대학생 장기표의 만남은 이소선이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장례식을 거부하며 평화시장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던 시기 장기표가 이소선을 찾아가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대학생 운동가들은 1960년대 4·19 혁명으로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정부의 부패와 대외 의존적 정치를 비판하는 등 민주주의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했던 노력을 1970년대로 이어가고 있었다. 장기표 역시 복학 후 학생운동에 열을 올리던 상황에서, 1960년대 이후 정부의 고도 경제성장 그늘 아래 평화시장 봉제 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이라는 가혹한 노동현장을 고발 기사로 접하게 되었다. 그는 1970년 10월 7일 경향신문 보도 기사를 보고 내용을 발췌하여, 학생운동을 알리는 신문 <자유의 종> 제2호에 실었다. 그러나 경향신문 기사가 보도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준수를 절규하며 분신행거한 청년 전태일의 소식이 전해진다. 이는 지식인 및 종교단체 등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었다.

대학생 장기표의 제안으로 서울법대 총학생회를 거쳐 학생장을 결의하였으나 장례식장을 찾은 학생 7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등 심한 제재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사회적 관심은 커져갔고 정부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노동조건 개선 8개 요구조항을 받아들였고, 노동청장 임승택은 평화시장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발표와 근로감독관 3명을 직위해제했다. [\(그림 1.2\)](#)

무기한 장례식을 거부할 수 없었던 이소선은 가족과 친구를 중심으로 11월 19일 관제 장례식을 치렀다. 결과적으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은 11월 20일 서울대 법대에서 추도식을 거행했고, 학교 측과 경찰의 강력한 제지에도 서울대 문리대,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각 대학교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전국대학생연합 이름으로 추도사를 발표했다. 그렇게 시작된



사회적 관심과 각성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지식인과 노동자가 연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3, 4)

### ▶ 전태일기념사업회와 이소선 정신

전태일기념사업회 발족 전후 70~90년대 활동한 황만호, 박계현, 이형숙이 기억하는 이소선은 아들 전태일이 그랬듯 사람에 대한 사랑과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천력도 대단한 사람이었다.

전태일기념사업회는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 아래의 강제적 노조 해산과 수배, 구속 탄압 속에 81년 1월 청계피복노동조합 역시 강제해산 명령으로 폐쇄되고, 더 이상 합법적 노조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합법적으로 노동자의 공간을 만들고자 1981년 ‘전태일기념관 건립 위원회’를 발족했고, 이것이 초기 기념사업회의 모태가 되었다.

전태일기념관 건립 위원회 초기는 문익환 목사가 이사장을 맡았다. 이소선은 깊이 관여하기보다는 외부 인재들이 중심이 되어 꾸려갈 수 있도록 행사에만 참여했다. 전태일 어머니로서 인식됐던 청계피복 노조에서보다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이소선은 한 조직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행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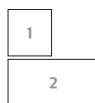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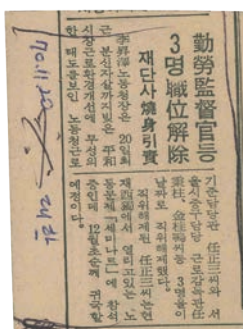
1984년 전태일기념관 건립 위원회는 ‘전태일기념사업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85년 노동절 기념대회를 창신동 전태일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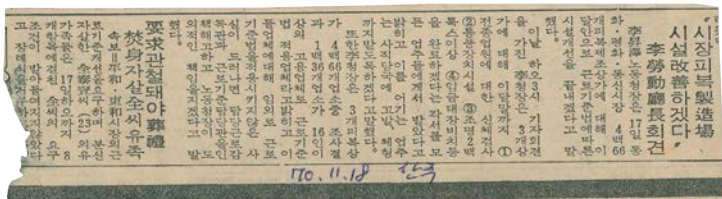
사업회에서 다시 개최하면서 많은 청계피복노조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같은 해 6월 기념사업회는 창신동 사무실에서 ‘전태일기념관’ 개관을 알리며 현판식을 거행했다. 부설로 노동자 상담소인 ‘안양노동상담소’도 개소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그림 5, 6, 7, 8)

전태일기념사업회는 청계피복노조가 강제해산되는 등 엄혹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상담하고, 전태일 정신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노동상과 문학상 제정 역시 노동운동의 외곽을 넓히기 위한 기념사업회의 또 다른 노력이었다. 또한 기념사업회는 1983년 전태일평전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을 출간하고 영화 ‘아름다운청년 전태일’을 제작해 1995년 상영하는 등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이소선이 함께했다. (그림 9)





1. <대한일보> '근로감독관 3명 직위해제', 1970.11.20.
2. <한국일보> '이승택 노동청장 피복제조상가 시설개선 발표', 1970.11.18.







3
4

3. <자유와참>제6호 '전태일 분신항거에 대한 서울지역학생 공동 결의문', 1970.11.30.
4. <연세춘추> 전태일분신 항거에 대한 대학교 행동지침을 알리는 시국 선언, 1970.11.30.





5

5. 85년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노동자들과 어울려 있는 이소선, 1985, 전태일기념관

6

6. 전태일기념관 개관식에서 축사하는 이소선, 1985.6.10, 전태일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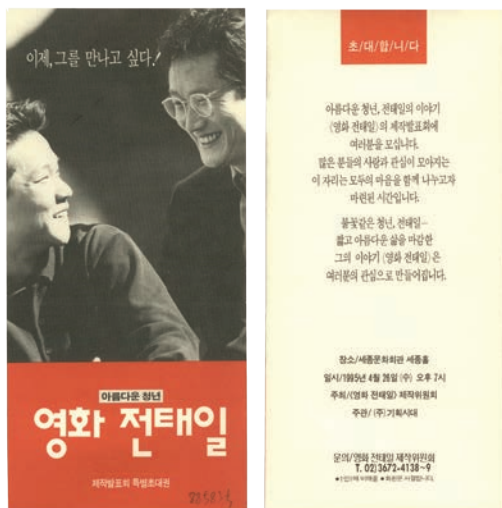
7

7. 전태일기념사업회 부설 안양노동상담소  
개소식에서 이소선, 1985, 전태일기념관

8

8. 전태일기념사업회의 '전태일기념관' 개관  
현판식, 1985.6.10, 전태일기념관





9	9
---	---

9.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영화 초대권,  
1995.4, 전태일재단



## 이소선 10주기를 맞으며 남겨진 사람들의 어머니, 이소선

“그 애가 죽는 순간까지 어린 근로자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을 회상할 때 가슴이 메입니다. 불에 그슬려 다 일그러진 손을 모아달라고 하더니 ‘어머니 담대해야 됩니다. 내 죽음을 원통하게 생각지 말시고 어둠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어린 동심에게 햇빛을 보게 해주세요. 나로 생각해 주시고 근로자의 어머니가 되어 주세요.’라고 한 목메인 마지막 흐느낌을 생각하니 내 자신이 그 후에 근로자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1971년 이소선 인터뷰 중-

### ▶ ‘여성 운동가 이소선’의 시작

이소선에게 태일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어머니 제 뜻을 꼭 이뤄주세요’였다. 그 말은 이소선 가슴속 깊이 강렬하게 박혔다. 장례식장을 찾은 많은 정부 관계자와 사용자 측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병들어가는 여공들을 위해 근로조건을 개선하려고 했던 아들 태일이의 뜻을 위해 장례식을 미루고, 친구들과 학생 등의 도움으로 평화시장 노조 설립과 ‘근로 개선 8개 조건’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1970년만 해도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목소리를 내고 결정권을 가진 행동이 쉽지 않을뿐더러



남편이나 아들을 먼저 보낸 여자는 죄인 취급을 받던 사회 통념이 존재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소선의 판단은 빠르고, 확고했다.

(그림 1, 2)

장례식 직후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전태일 친구 몇 명을 중심으로 시작된 준비위원회는 1970년 11월 27일 노조 설립을 이뤄냈다. 노조 설립이란 목적은 이뤘지만 다른 노동조합과 달리 노동자들이 모여서 필요에 따라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설립 신고 후 노동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조합원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평화시장 80%가 넘는 여성 노동자를 남성 간부 중심의 노조에서 모집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이 시기 노조 부녀부장을 맡은 정인숙과 아카시아회 초대 회장을 맡아 초석을 다졌던 유정숙은, 이소선을 만나고 청계노조에 함께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소선은 아들의 장례식 직후 대학, 교회 등을 다니며 평화시장의 실태를 알렸고, 노조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을 ‘와줘서 고맙다’라며 진심을 다해 환대했다.

청계노조 설립 후 이소선에게 노동교실 실장, 노동조합 고문 등 직책도 주어졌지만 회의에 참석하거나 발언을 주도적으로 하기보다 뒷바라지하는 것이 이소선의 방식이었다. 서울시에 제안하여 마련된 무료 급식소 후생식당에서 노동자 급식 질을 높이기 위해 직접 국수 삶는 일을 한다거나, 헌옷을 주워다 수선 후 다시 시장에 팔아 마련한 돈으로 노조 간부 뒷바라지를 했다. (그림 3) 그러나 빠른 판단력과 확고한 결단력으로 중심을 잡았다. 1971년 1월 어렵게 노조 협의가 이뤄진 직후 정부와 교섭이 생각처럼 되지 않자



‘우리들이 노동청장실을 점령해 기사를 크게 내자’는 김성길 지부장 의견을 듣고 전태일 친구들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이소선은 너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속되면 청계노조를 지켜낼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여 단호하게 반대했고, 친구들은 이소선의 뜻을 따랐다. 1973년 5월 21일 개관과 동시에 빼앗긴 노동교실을 다시 되찾기 위한 과정이나 1975년 12월 23일 노동시간 단축 농성에서 이소선은 권총을 차고 있는 경찰 앞에서도 오히려 호통을 치며 투쟁의 당위성을 알렸다. 이후로도 78년 노동교실 재탈환, 81년 1월 청계노조 해산명령 항의 농성, 87년 노조사무실 탈환 등 굵직한 사건마다 이소선은 노조 간부, 조합원과 함께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쟁의나 노동자 투쟁과 죽음의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슬픔을 어루만졌고, 노동자와 함께했다. (그림 4)

#### ▶ 남겨진 사람들의 어머니, 이소선

이소선은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투쟁 속에서 재야운동으로 활동을 넓혔다. 민주화운동 속에서 목숨을 잃은 청년의 소식이 들리면 가장 먼저 달려가 위로했다. 1986년 8월에는 남겨진 가족들을 모아 ‘전국민족 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를 꾸려 초대 회장을 맡았고, 1993년까지 이어갔다. 유가협을 맡은 이소선의 많은 활동 중 괄목할 만한 것은 거점 공간 ‘한울삶’을 마련한 것이다. 변변한 사무실이나 쉼 공간 하나 없던 당시 유가협이 사무실로 쓸 전세방을 얻기 위해 어렵게 전전하던 것과



그마저 경찰들이 훼방을 놓는 것을 보고 이소선이 집을 사기 위한 안을 냈다. ‘우리 아이들 영정사진을 마음 편히 걸 수 있는 공간과 지방에 있는 가족들이 올라왔을 때 편하게 머물 곳’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이소선과 유가협은 1988년 겨울 무렵 글씨와 그림 등을 기증받아 1989년 3월 아람미술관에서 서화전을 개최했고, 같은 해 12월 창신동에 작은 한옥 ‘한울삶’을 마련했다. 한울삶이 생기면서 유가협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고, 회원 수는 늘어났다. (그림 5.6)

이외에도 1988년 10월 17일부터 89년 2월 27일까지 유가족과 함께 135일간 기독교회관에서 의문사 진상 규명 농성 투쟁을 했으며, 1998년 10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의 의문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422일간 이어갔다. 그 결과 2000년 의문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법 제정을 이뤄냈다.

현재 유가협 회장 장남수는 이소선에 관해 ‘86년부터 90년 말까지 민주화 투쟁이나 노동자 투쟁에서 사망 사건이 있으면 어디든 먼저 달려가 남겨진 가족들을 껴안고 함께 아파했다’고 설명했다. (그림 7.8)

이소선은 늘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세요’라면서도 ‘될 것은 언젠가 된다 기다려 봐라! 지금은 안 될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된다’며 조급해하지 않았다. 언제라도 상황에 맞는 지도력과 포용력으로 모두를 모으고 끌어안았다.



유가협은 현재 이소선의 정신을 이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기 위해 2021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그림 9\)](#)





1	2
---	---

1. <주간조선 '아들은 갔지만 할 일은 남아', 1970.12.6, 전태일기념관
2. <한국일보, 기사스크랩-아들의 꺾인 신념 관찰한 어머니>, 1970.11.19, 전태일기념관





3

3. 후생식당에서 노동자 급식을 챙기기 위해 국수를 삶던 이소선, 1970초, 전태일재단

4

4. 청계피복노조 사무실 탈환 기념 및 전진대회에서 발언하는 이소선, 1987, 전태일기념관





5	6
	6

5. 유가족 만남의집 마련을 위한 서화전 팸플릿, 1989, 유가협

6. 한울삶에서 이소선, 시대미상, 유가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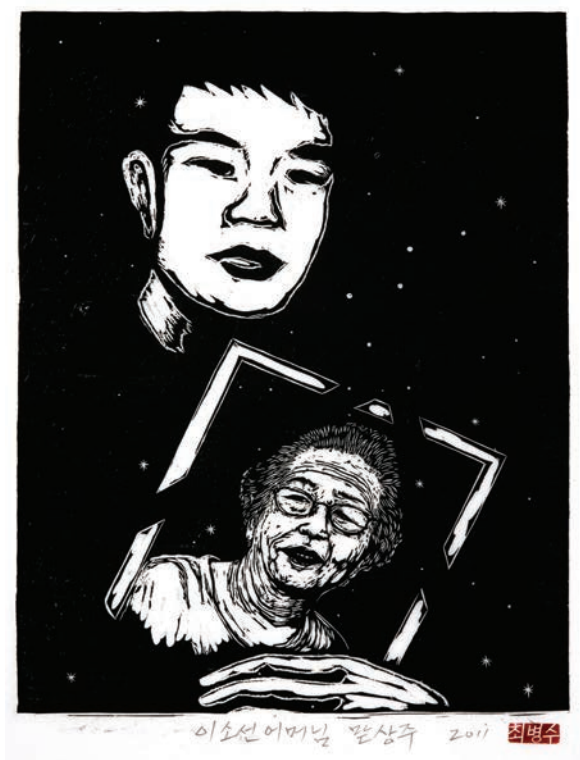
7

7. '의문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장에서 이소선(아래열 가운데), 1999.5, 유가협

8

8. 의문사 진상규명 시위 현장에서 유가족과 함께 한 이소선(가운데), 1989, 유가협





9. 최병수작 이소선 맞 상주 전태일, 판화, 시대미상, 전태일기념관



## 청계피복노동조합 연표



## 청계피복노동조합 연표

### 1970

- 11.13. 근로기준법 화형식과 ‘전태일분신항거’
- 11.16. 노동청장 8대 근로조건 개선 요구안 수락
- 11.20.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결성준비 위원회 발족
- 11.27.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 창립식 개최 및 결성
- 12.24. 제1차 상무집행위원회 결의

### 1971

- 1.9. 평화시장 제1회 노사협의회 구성과 단체교섭 시작
- 2. 후생식당 운영(동화상가 4층)
- 4.9. 최초 청계피복노조 단체 협약서 체결
- 5. 소모임 ‘아카시아회’시작(동구릉 야유회)
- 5.16. 한영섬유 노동자 김진수 사망 연대투쟁
- 9.12. 제1회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11.13. 제1주기 전태일 추도식
- 12.19. 제1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 12.26. 첫 연소 근로자 위안잔치

### 1972

- 3.6. 후생식당 개선요구에 대한 상급단체 방문교섭
- 3. ~ 4. 아카시아 산하모임 및 남성 소모임 증가
- 4. 평화새마을노동교실 운영
- 5.12. 4개 시장 단체협약 갱신 조인
- 8.31. 평화교실 제1기 수료식
- 9.30. 연합노조 제11년차 대의원회 참석
- 10.13. 새마을노동교실 건립추진위원회 발족
- 10.16. 제2기 평화새마을교실 수강생 모집



- 11.13. 제2주기 전태일 추도식
- 11.26. 제2차년도 정기대의원 대회
- 12.17. 연소 근로자 위안잔치(명동성당)

#### ○ 1973

- 1.10. 제1호 「청계피복노보」 발행
- 2.20. 제2호 「청계피복노보」 발행
- 3.6. 아프리 사무소장 내방
- 3.10. 노동절 행사
- 4.25. 제3호 「청계피복노보」 발행
- 5.21. 새마을노동교실 개관
- 7.3. 새마을노동교실 운영권 박탈
- 9.18. 노동교실 개관식 민주인사 초청으로 간부 전원 사직 및 최종인 직무대리 체제
- 11.1. 후생식당 폐쇄
- 11.13. 제3주기 전태일 추도식
- 12.17. 새마을 노래잔치 공개방송

#### ○ 1974

- 1.30. 제1호 「청계피복노조소식」 발행
- 1.31.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대책위원회 발족
- 2.5. 시장별 구역담당 위원제도 신설
- 6.14. 제4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 7.1. 제2호 「청계피복노조소식」 발행
- 8.20. 복지사업 일환 복지지원 개관식(유림빌딩 2층)
- 11.3. 제3회 지부장컵 쟁탈 등산대회(도봉산)
- 11.13. 제4주기 전태일 추도식
- 12.22. 연소 근로자 위안잔치
- 12.30. 4개 시장상가 단체협약 갱신 체결



## 1975

- 1.25. 제3호 「청계피복노조소식」 발행
- 2.7. 노동교실 복구 투쟁(동화상가 옥상, 새마을노동교실 점거농성)
- 4.30. 노동교실 이전(유림빌딩)
- 5.21. 임금제도개선 대책위원회
- 6.26. 제5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 9.15. 제4호 「청계피복노조소식」 발행
- 11.2. 지부장컵 쟁탈 등산대회
- 11.13. 제5주기 전태일 추도식
- 12.16. 저녁 8시 퇴근실시

## 1976

- 1.27. 부관상가 단체협약 신규 체결
- 3.6. 임금인상과 제도개선 투쟁(시다 직불제)
- 6.24. 제6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 8.24. 단체협약 유니언숍 제도화 체결
- 9.16. 풍천화섬 연대투쟁(청계노조 총무부장 구속)
- 11.13. 제6주기 전태일 추도식

## 1977

- 1.15. 중구 신당동 신일 산업사 체불임금 항의농성
- 5.8. 조합원 어머니 위안잔치
- 4.20. 단체협약 체결(평화,동화,통일,동신상가 체결)
- 5.5. 임금인상 단체협약 체결
- 7.3. 제7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 7.8. 협신파혁 노동자 민중진 사망 사건 연대투쟁
- 7.22. 이소선 구속, 노동교실 폐쇄(장기표 재판에서 법정모욕 명분)



- 7.29. 이소선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
- 9.9. 이소선 석방과 노동교실 반환을 위한 결사 투쟁 결의(유림빌딩 3, 4층)
- 10.23. 백운산 정기등산대회
- 11.13. 제7주기 전태일 추도식
- 12.25. 연소 근로자 위안잔치
- 12.26. 이소선 항소심 재판(징역1년 선고)

## 1978

- 4.12. 평화시장내 8개 상가 단체협약 신규 체결
- 9.27. 제8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 11.13. 제8주기 전태일 추도식
- 12.31. 연소 근로자 위안잔치
- 12. 야학활동 시작

## 1979

- 1.15. 제5호 「청계피복노조소식」 발행
- 4.7. 단체협상 시작
- 5.10. 제6호 「청계피복노조소식」 발행
- 6.20. 제9차년도 정기대의원대회
- 7.5. 제7호 「청계피복노조소식」 발행
- 8. YH무역노조 농성 연대투쟁
- 9.29. 제8호 「청계피복노조소식」 발행
- 10.5. 아카시아회 달맞이 행사
- 11.13. 제9주기 전태일 추도식
- 11.25. 지부장컵 쟁탈 축구대회(동국대)
- 12.22. 중부지역사무소 설치
- 12.30. 연소 근로자 위안잔치(동대문 천주교회)



## 1980

- 1.8. 중부지역사무소 개소식
- 3.6. 1980년 임금인상 투쟁 결의
- 3.20. 중부시장 노동조건 투쟁위원회 발족 및 노사교섭 시작
- 3.21. 제9호 「청계피복노조소식」 발행
- 4.17. 1980년 임금인상 투쟁 협상 타결
- 5.13. 노동 기본권 확보 전국 쟁기대회
- 5.26. 중부시장 노사협의회 설치와 유니언숍 포함 단체 협약 체결
- 5. 신군부 노조 정화위원회 설치
- 7.16. 이소선 구속(임금인상 투쟁 연설을 문제 삼아 계엄법 위반 명분으로 수배)
- 11.13. 제10주기 전태일 추도식
- 12.8. 신군부 노조탄압 시작

## 1981

- 1.6. 청계노조해산 명령서 통보
- 1.21.~22. 경찰의 청계노조 사무실 압수 및 폐쇄
- 1.30. 노조 강제해산 반대, 합법화 투쟁(아프리 한국사무소 점거 농성)
- 5.24. 노조복구를 위한 비공개 투쟁 방식 채택과 청계모임 제안
- 9.27. 청계모임 조직구성 및 공식화
- 11.13. 전태일기념관 건립추진 위원회 결성(1984년 전태일기념사업회로 개칭)

## 1982

- 3.10. 청계모임 주최 연소 근로자 위안잔치 재개
- 7.25. 청계모임 제2년차 총회
- 11.13. 제12주기 전태일 추도식
- 12. 청계모임 활성화



## 1983

- 6.20. 『전태일 평전』 전태일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명으로 출간
- 10.9. 제12회 청계피복노동자 등산대회(전신 지부장컵 쟁탈 등산대회)
- 10.30. 노조복구 투쟁 방식 전환 결의(공개적 · 대중적 투쟁으로 전환)
- 11.13. 제13주기 전태일 추도식 및 즉석 집회

## 1984

- 3.10. 청계노조, 원풍모방, 콘트롤데이터, 서통, YH무역 등 연대사업 활동
- 3.27. 청계피복노조 복구 방향 청계노조 재건으로 채택, 준비 위원회 발족과 법외노조 활동 시작
- 4.9. 신당동으로 노조사무실 이전 및 집행부 구성
- 4.12. 신당동 노조사무실 현판식
- 4. 노학연대 구상(청계노조 지도부는 적극적 복구 투쟁을 위해 노동자와 학생 연대투쟁 구상)
- 5.1.~2.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공개 토론회 및 공청회
- 9.19. 제1차 합법성 쟁취투쟁(청계천6가 고가, 동대문, 대학로 일대에서 노학연대 가두투쟁)
- 10.12. 제2차 합법성 쟁취투쟁(을지로 5가 수도예식장 앞)
- 11.13. 제14주기 전태일 추도식 및 자체 시위
- 11.30. 택시기사 박종만 분신항거에 대한 연대투쟁 결의

## 1985

- 3. 창신동 ‘평화의 집’ 개소
- 4.12. 제3차 합법성 쟁취투쟁(신당동 중앙시장 · 한양공고 앞)
- 6.24. 대우어패럴 노조위원장 구속에 대한 항의 동맹파업에 청계노조 연대투쟁
- 11.13. 제4차 합법성 쟁취투쟁(제기동 미도파 백화점, 경동시장, 청량리)
- 11.27. 청계노조 해산명령, 사무실 강제폐쇄 통보



## 1986

- 3.17. 구로공단 박영진의 노동3권 보장 요구 분신항거에 대한  
청계노조 간부 연대투쟁
- 4.11. 제5차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투쟁(왕십리 무학극장 앞)
- 5. 청계노조 주요 간부 연행과 황만호 구속

## 1987

- 7.~ 8.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청계노조 재건 시작
- 7.15. 청계노조 사무실 탈환
- 11.30. 노동법 개정 지역노조 설립 가능
- 12.1. 노조설립 신고서 제출
- 12.3.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 및 재신고

## 1988

- 2.23. 신고필증 요구와 무기한 농성투쟁
- 종로구청 항의 방문(신고필증 교부 요구)
- 3.17. ‘개정노동법상의 노조설립 형태에 관한 공청회’  
청계, 인쇄, 제화노조 공동개최(명동성당)
- 4.17. ‘지역노조 쟁취를 위한 공동실천 대회’ 청계, 인쇄, 제화노조  
공동 개최(고려대)
- 5.2. 청계노조 신고필증 교부, 합법성 쟁취
- 5.3. 청계노조 합법성 쟁취 기념식
- 5.29. 서울지역 노동조합협의회 결성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 노동운동기록 사료연구

초판1쇄 발행 2022년 9월 30일

지은이	양윤미(전태일기념관 학예연구사)
펴낸곳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기획 및 책임편집	유현아(전태일기념관 운영기획팀장)
인쇄	모모새비즈니스
디자인	최민영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전화	02-318-0903
팩스	02-318-0881
홈페이지	<a href="http://www.taeil.org">www.taeil.org</a>
이메일	<a href="mailto:taeil@taeil.org">taeil@taeil.org</a>

©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2022

ISBN: 979-11-980330-0-0(93060)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와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